

반도체 업종 전문가들이 바라본 2019년 반도체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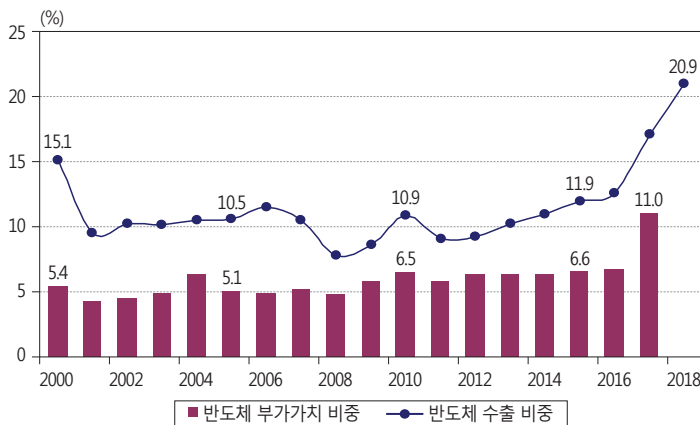
요 약

최근에 국내외 반도체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반도체 경기 향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와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감안하여 국내 반도체 업종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경기 판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반도체 경기 향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았다. 우선 올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경기는 지난해보다 부진하지만, 평년 수준 내지 그 이상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 경기의 급락 가능성은 다소 낮게 보였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올해 연평균 두 자릿수 하락률을 예상하면서 가격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두 감소하면서 연간 전체로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룹별로는 애널리스트 그룹에서 올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두 자릿수 감소를 예상하였고, 협단체·기타 그룹에서는 하반기 수출이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 연간 전체로 한 자릿수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은 물론 국내 경제성장이나 경기변동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최근의 반도체 경기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사전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 등 개도국들의 기술 추격에 대응하여 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산업 간 기술융합 등을 통해 여타 주력 업종들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는 단일 품목으로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경제성장이나 경기변동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업종이다. 실제로 반도체 수출은 특히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수출 증가의 약 90% 이상을 기여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까지 높아졌고, 부가가치 기준에서 보더라도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현재 10% 선을 넘어선 것(11.0%)으로 나타나는 등 그 중요도가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해 반도체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도 지난 연말에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반도체 경기의 전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 반도체 업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올해 반도체 경기 판단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동 조사는 에프엔가이드·매트릭스를 통해서 반도체 업종을 담당하는 국내 금융사, 협단체, 연구소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26명(애널리스트 11명, 협단체·기타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말

〈그림 1〉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의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주 : 부가가치는 제조업 명목부가가치, 수출은 총수출 대비 기준.

〈표 1〉 설문조사 개요

조사 대상	- 반도체 업종 전문가 26명(애널리스트 11명, 협단체·기타 15명)
조사 기간	- 2019.2.18일(월) ~ 2.22일(금)
조사 방식	- 온라인 설문 및 오프라인(전화) 조사
조사 내용	- 글로벌 반도체 경기 전망 - 반도체 가격 전망 - 반도체 수출 전망
수행 기관	- 산업연구원 의뢰로 에프엔가이드·매트릭스 조사 수행

(2.18~2.22일)에 수행한 것이다. 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경기 전망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전망 및 사유,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상·하반기 전망 등에 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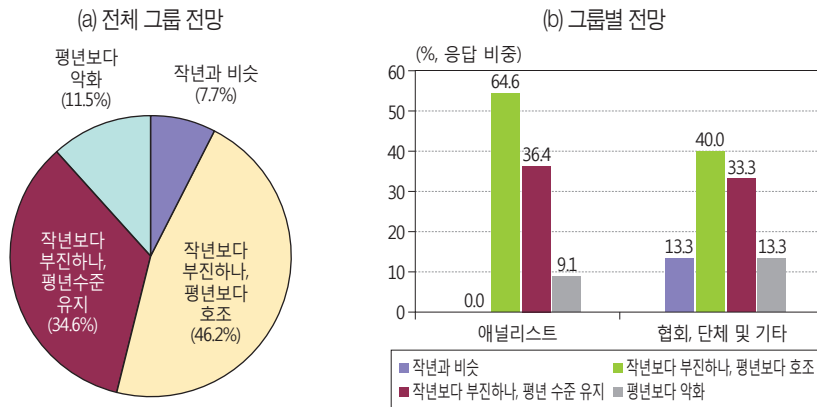
1. 글로벌 반도체 경기 전망

먼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상당 부분(74.2%, 2018년 기준)을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전망에 있어서 올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부진하지만, 평년 이상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아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인 불황 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은 아직 낮아 보인다. 항목별 응답 비중으로 는 전문가 전체 그룹을 대상으로 ‘작년보다 부진하나, 평년보다 호조’가 전체 응답의 약 4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작년보다 부진하나, 평년 수준 유지’를 응답한 비중 이 약 35%를 차지하면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평년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전 체의 약 12%를 차지하였고,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약 8% 수준으로 상대 적으로 매우 적었다.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올해 전년보다 는 약간 둔화되지만, 평년 수준 이상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는 견해가 아직 까지는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 그룹별로는 애널리스트의 경우에 ‘작년보다 부진하나, 평년보다 호조’가 예상된다는 응답(64.6%)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평년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9.1%)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애널리스트들은 글로벌 반도체 시 장이 지난해 이례적인 호황을 구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올해는 둔화세가 불가피하지만, 하반기 점진적인 수요 회복과 제한적인 공급 증가로 수급 여건이 전 반적으로 개선되면서 평년 이상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았다. 반면에 ‘평년 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현재의 재고 축적분이 수요 대비 부담스러운 수준에 기인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협단체·기타 그룹에서도 ‘작년보다 부진하나, 평년보다 호조’가 예상된다는 응답 (40.0%)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33.3%)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평년 수준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데는 PC 및 스마트폰의 견조한 수요와 하반기 데이터센터 증설 기대, 생산업체들의 적극적인 공급량 조절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외 ‘평년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

〈그림 2〉 2019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및 가격 전망



과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서로 동일한 비중(13.3%)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비관적인 전망의 근거로는 중국의 시장 진입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심화와 수출 수요 및 설비투자 감소 예상 등을 언급하였다.

2. 메모리 반도체 가격 전망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전망에 있어서 전체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는 올해 약 24.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 보았다. 반도체 가격의 소폭 상승 및 보합을 예상한 응답이 전체의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올해 반도체 가격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85%)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 가격의 조정 국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을 시사하고 있다

전문가 그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애널리스트 그룹에서는 올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평균 약 34.9%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수요 둔화 및 재고 누적과 공급 과잉 등의 영향으로 인해, 특히 낸드 가격을 중심으로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 보았다.

협단체·기타 그룹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해 평균 약 16.0%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일부 응답자들은 반도체 가격의 보합 내지 소폭 상승을 예상하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지난 2018년 초반까지는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수요 부진 및 공급 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가격 하락세

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하반기에 반등하는 경우 올해 연평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견해도 일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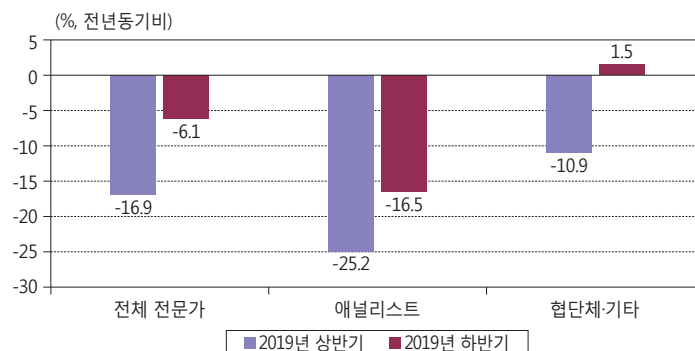
3. 2019년 반도체 수출 전망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전망에서는 전체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두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연간 전체로는 전년대비 감소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다만,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출 감소율이 한 자릿수로 축소되면서 반도체 수출 경기의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평균 약 16.9% 감소(전년동기비 기준)하고, 하반기 수출은 약 6.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문가 그룹별로 살펴보면 애널리스트 그룹에서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협단체·기타 그룹에서는 상반기에 두 자릿수 감소하고, 하반기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애널리스트 그룹의 경우에 상반기 반도체 수출이 평균 약 25.2% 감소하고, 하반기에도 16.5% 감소하면서 두 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반면, 협단체·기타 그룹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상반기에 약 10.9% 감소하지만, 하반기에는 1.5% 증가하면서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처럼 애널리스트 그룹에서 반도체 수출 전망이 다소 비관적으로 나타난 데는 앞

〈그림 3〉 2019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전망






서 살펴본 메모리 반도체 가격 전망에서 올해 가격 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요약 및 시사점

우리 경제와 산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이 지난해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수출도 빠르게 축소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경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종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및 가격 전망과 반도체 수출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았다.

조사 결과,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보다 부진하지만 평년 수준 이상의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불황 진입 가능성은 다소 낮게 보았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애널리스트와 협단체·기타 그룹 모두 올해 두 자릿수 하락률을 예측하면서 가격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올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상반기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하반기에는 감소 폭이 줄어들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애널리스트 그룹에서는 올해 반도체 수출에 대하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을 예상한 반면에 협단체·기타 그룹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하반기에 소폭 증가로 돌아서면서 한 자릿수 감소율을 예상하였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와 산업에

서 중요도가 매우 큰 반도체 업종의 경기 변화도 보다 면밀히 주시하면서 관련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예기치 못한 충격은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등 개도국들의 기술 추격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산업 간 기술융합 등을 통해서 여타 주력 업종들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지원과 유관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민성환

동향분석실·연구위원
shmin@kiet.re.kr / 044-287-3127
〈주요 저서〉

- 제조업 고용의 구조적 특성과 변동 요인 분석(2017, 공저)
- 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2016, 공저)



강두용

동향분석실·선임연구위원
dykang@kiet.re.kr / 044-287-3205
〈주요 저서〉

- 수출 변화가 국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2017)
- 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2016, 공저)